

“청년인턴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”

- 2025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개최

- 국무조정실(실장 윤창렬)은 8월 27일(수)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‘2025년 상반기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’를 개최했다. 이번 발표회는 국무조정실 청년인턴들이 수행한 정책참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,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청년인턴들은 청년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하고 청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자료조사, 현장방문, 인터뷰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연구보고서 및 홍보물을 제작했다.
 - ‘고립·은둔청년 지원모형’ 연구팀은 “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현상이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”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회복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.
 - ‘청년주거문제’에 대해 연구한 청년인턴은 지방 기숙사 이용 시 불편한 점 등 청년이 실제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,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.
 - ‘청년친화도시’ 연구팀은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 근무한 인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,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.
 - ‘청년정책 홍보’ 연구팀은 “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”라며, 각 부처의 청년정책 홍보 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.

- ‘청년인턴 진로탐색’ 연구팀은 청년인턴들이 일경험과 연계해 자신만의 커리어 경로를 설계해 볼 수 있는 ‘커리어온’ 프로그램을 청년인턴 제도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.
 - ‘인턴뉴스 제작’ 팀은 각 부처 청년인턴들의 업무, 현장활동, 취업사례 등을 직접 취재하여 제작한 온라인 뉴스레터를 매주 배포했던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다.
- 이번 발표회에는 각 주제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청년정책 전문가, 청년 위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인턴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함께 논의했다.
-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“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 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”라며 “오늘 청년인턴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한 제안은 각 분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-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대표로 활동한 이정현 청년인턴은 “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고,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행복했던 시간이었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관리팀	책임자	과 장 이정준 (044-200-1988)
		담당자	사무관 전효주 (044-200-1996)

참고

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주제별 주요내용

주제	제안 배경	주요 내용
고립·은둔 청년 지원모형 개선	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 가중에 따라 고립·은둔 청년이 증가하고 있어 복지부, 서울시 지원정책 사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	△고립·은둔 청년 정의 통일, △전문상담·지원 학과 트랙 신설, △취·창업 연계 지원, △예방적 지원, △청년미래센터 개선, △인식개선 홍보
청년 주거정책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	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단순 현금성 지원 외에 청년이 지방에 정주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실험모델 제안	△공공기숙사 생활편의성 및 교통 접근성 제고, △자발적 커뮤니티 구성, △커뮤니티 활동 지원, △데이터 기반 효과 검증
청년친화도시 발전방안 : 부산진구 사례를 중심으로	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보완점 및 발전 방향 제시	△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책참여 강화, △지자체별 앵커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, △온·오프라인 홍보
청년정책 홍보 효율화	청년들이 청년지원정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홍보방안 모색 필요	△온통청년 기능 개선, △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대상 확대
청년인턴 진로탐색 프로그램 '커리어온' 설계	인턴 경험과 연계해 자신만의 커리어 경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프로그램 신설 제안	△(1단계) 자기 탐색, △(2단계) 기관방문, △(3단계) 포트폴리오 작성
진로탐색 활동 시범운영	국회 사무처, 연구기관, 민간기업 방문 및 인터뷰 실시 후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실제로 운영해봄으로써 경험을 쌓고 개선점 모색	△향후 예산 등 지원체계 마련 및 활동 결과물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
인턴뉴스 제작	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, 청년 인턴간 교류 확대 도모	△타 부처 청년인턴과의 소통수단 확보 및 협업 콘텐츠 기획 제안 △중앙부처 외에 공공기관 선배 인턴까지 인터뷰 대상 확대 △청년인턴 뿐 아니라 공무원 등 다양한 대상에 인턴뉴스 배포